



피에나 휴대용무선믹서 '쿠카'

# 전기선 없애 휴대 편리한 믹서... 美·中서 러브콜

소형가전업체 피에나 김미선 대표는 2년 전 중국 상하이 출장 중 낯선 광경을 봤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 거대한 사무실에도 책상마다 과일이 놓여 있었다. 가격이 저렴해 집 또는 사무실로 과일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했다. 점심시간에는 생과일주스를 파는 상점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김 대표는 무릎을 쳤다. 과일을 쉽게 주스로 만들 수 있는 휴대용 믹서를 개발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세계 최초 무선 믹서

지난해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6'에서 무선 믹서 '쿠카' 시제품을 선보였다. 전기선을 없앤 세계 최초 믹서였다. 지난 2월 제품을 내놓자마자 반응이 왔다. 텀블러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제품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품 홍보 없이도 출시 첫달 5000여대가 팔리면서 월 매출이 3억원대로 뛰었다. 지난달부터는 중국 수출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주변에 유심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다"며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었다. 결혼 후 아기를 키우면서 창업의 꿈을 키웠다. 분유 때문이었다. 한밤중에도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 물을 끓이고 분유를 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적당한 온도도 아기에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자동분유제조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창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2012년 회사를 세

## 출시 첫달 5000여대 판매 월매출 3억원대로 성장

## 작년 중상하이에 법인 설립 롯데백화점·이마트에 입점

었다. 김 대표는 "에 키우다 보면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육아 경험으로 제품 개발  
처음엔 순탄치 않았다.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김 대표는 설계와 생산까지 제조업 전반을 다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다"며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축률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었다. 금형 비용이 두 배로 들었다.

김 대표는 제품의 기능성과 위생관리에 집중했다. 쉽게 분리해 세척할 수 있고 아기가 먹기에 알맞은 분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분은 노출되는 전자기기는 만큼 안전성에도 공을 들였다. 9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제품이 완성됐다.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이 났다. 출시 한 달 만에 미국에 판매 법인을 세웠다. '세계 최초'의 자동분유제조기란 명성을 얻었다. 이 노하우를 무선믹서에서 그대로 적용했다.

## ◆올해 100억원 매출 목표

피에나는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을 시작했다. 무선 믹서가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수출량이 늘고 있다. 중국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 무선 믹서를 주스용 텀블러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방기기업체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선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에 입점해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원이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김미선 피에나 대표가 휴대용 무선믹서를 분리해 칼날과 본체를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에나-휴대용무선믹서 (031)281-0969 △이슬-텐트리거폼치약 (053)584-3320 △에코바스-카멜레온LED조명 (041)589-0306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트원격물관리통합솔루션 (032)850-2600

## 세계 항생제 내성 특위 한국 4년간 의장국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사진)는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세계 각국이 환경, 농축수산물, 식품 등 비인상분야에서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 '송도바이오대로 300'으로 주소 바꾼 삼성바이오로직스

### 바이오 특목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소를 새로 바꿨다. 본사 근처 도로 이름이 지난 1일 '송도바이오대로' (사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새 주소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이다. 기존 주소는 '인천시 연수구 첨단대로 125'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사 입구가 있는 도로명인 첨단대로를 주소로 채택하다가 이번에 본사



옆으로 난 도로 이름이 '식산대로'에서 '송도바이오대로'로 변경되면서 주소를 바꿨다.

도로번호 '300'에는 300년을 영속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자는 뜻을 담았다. 영화 '300'에 나오는 전사들처럼 불굴

의 의지로 세계 바이오 시장을 개척하자는 의지도 반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공문 형식, 명함 등의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바이오 메카에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도로명을 바꾼 것은 송도국제도시를 국내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집적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영문명은 'Songdo Bio Way'다. 도로 표지판은 1일 교체됐다. 지난해 8월 건설된 인근의 송도4교는 송도바이

오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천시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벤치마킹했다. 샌프란시스코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DNA Way(유전자대로)'라는 도로가 있다. 이곳에 입주한 세계 최대 생명공학회사 제넨텍의 주소는 'DNA Way 1'이다. 사우샘프턴시스코시는 이 도로의 1번 건물 주소를 제넨텍에 부여해 바이오 중심도시라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의약품 30여개 개발해 매출 100억 올린 강소기업

### 모범여성기업인상에

### 김정숙 라이트팜텍 대표



"대형 제약사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틈새시장 의약품에 주력하며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두 개 이상 신약을 꾸준히 선보이는 연구개발(R&D) 능력이 강점입니다."

김정숙 라이트팜텍 대표(사진)는 3일 서울 구로동 본사에서 "직접 개발한 의약품 종류만 30여개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광역동 암치료제, 세계 최초 소변을 이용한 활성산소분해제 개발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상을 받았다.

라이트팜텍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 대표가 2005년 설립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냈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말티미네랄, 셀레늄, 아연 등 다양한 주사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원래 중환자용 주사제인데 항산화 및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 '명품 주사' 등으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4년 전 수취해소음료 '편안타'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간암 치료제인 항산화제

연구과정에서 간 해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숙취 해소에 응용했다.

그는 "마케팅 및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온라인몰과 소셜커머스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편안타는 여성경제인 협회를 통해 중국 중동 등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메디컬 화장품 '아보아르'를 내놨다. 피부에서 시술을 받은 뒤 바르는 리프팅 화장품이다. 김 대표는 "피부와 네트워크인 오라클메디컬그룹과 양해각서를 맺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팜텍의 R&D 인력은 전체 임직원(30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김 대표는 "의료계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많은 제품에서 '국내 최초' 수식어를 달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며 "전문약품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청년 글로벌 보부상 지원하세요

청년희망재단(이사장 박희재)이 '청년 글로벌 보부상' 2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글로벌 보부상은 해외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최소 1년간 해외법인과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다. 현장에서 청년들이 해외영업 등 실무 경험을 쌓아 과거 대기업이 하던 상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공급업체 호전실업을 비롯해 창성에이스산업, 인팩, 송화엔지니어링, 한국인삼한인홍, 좋은차닷컴, 삼성정밀, 링크플러스 등 8개사가 이번 2기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에서 근무할 총 24명을 재단 홈페이지(yhf.kr)를 통해 뽑는다. 근무지는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라오스 등이다.

재단은 청년 글로벌 보부상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 청년의 처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8개 참여 기업 중 6개사의 2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나머지 2개사 3명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계약직이다. 채용 인원의 연봉은 평균 3152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 및 복지 혜택도 받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2017 환경대입 자소서 맞춤형 집중 캠프**

내 학생부에 딱 맞는 자소서 작성비법 코칭!  
실제에서 합격까지!

5단계 One Step 완성형

- 1단계 개인 생거부 분석 및 핵심전략 도출
- 2단계 1회차 집중 캠프
- 3단계 온라인 자소서 첨삭
- 4단계 2회차 완성 캠프
- 5단계 최종 첨삭 및 완성

자소서 전략설명회 일정

1회차: 2016년 7월 7일 (목) 10:00 ~ 12:00  
2회차: 2016년 7월 9일 (토) 10:00 ~ 12:00

대상: 학생부 종합전형 대상 학부모 및 고3 수험생  
장소: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문의: 02) 360-4045  
접수: http://ac.hankyung.com

①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의 틀'

한국경제신문

# 근로기준법 실무워크샵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법은

참석하지 마세요!

- smart hire, soft fire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 퇴배 한가지 피로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인가?
- 우리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있는가, 누구인가?
-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란?
- 근로계약상 총상 의무과 배려 의무란 무엇인가?
- 공공·타당한 인사행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성희롱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사표를 던진 후 철회할 수 있는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요청할 수 있는가?
- 정년을 정하지 않으면 퇴임인가?
- 저성적자 퇴출은 징계해고인가?
-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경우는?
-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할 경우 상여금 지급해야 하는가?
- 상여금 삭감규정이 있는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워크샵 주요내용:

- 채용/근로계약 실무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 인사처분 실무
- 징계처분 실무
- 근로계약 종료 실무
- 저성적자 퇴출 지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
- 근로시간/휴일/휴가 실무
- 임금/복지후생 실무
- 통상임금 지침
- 평균임금 실무
- 여성근로자 실무
- 비정규직근로자 실무
- 중합집의응답

교육일정: 7월 14일(목) ~ 15일(금) / 10:00 ~ 17:00, 2일 12시간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2호선 중랑역 4번 출구)  
교육비: 28만원  
제공사항: 김광욱 노무사 홈페이지(www.klcc.co.kr) 1개월 무료 이용권  
강의용 특수교재, 중식, 주차 제공  
접수문의: 02) 360-4883, http://ac.hankyung.com

강사: 김광욱 노무사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  
제 27회 행정고시 및 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노무관리지 이라님 프로그램 강사 등